

기도

1.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우리의 오른쪽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은 언제입니까?

신앙

바이블로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바울서신 가운데 분량이 가장 적은 말씀으로 심오하고 어려운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없다. 단지 빌레몬의 집에서 로마로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당부한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 보여주는 내용이다.

구역 공과

2022년 3월 6일

여호와와 나의 산업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

시편 16편 3~8절 (28장, 435장)

본문은 다윗이 고난과 환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성도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산업과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3~6절).

다윗은 환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1~2절).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다윗은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찬양합니다(3절a).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환란 가운데 도망 다니면서 때로는 어렵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돕는 이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윗을 따르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3절b).

엘리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항하여 싸워서 죽었지만, 이세벨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를 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혼자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라고 찬양합니다(4~5절).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피의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 모든 힘과 정성을 쏟아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 애를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산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신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찬양합니다(6절). 여기서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함께 하면 영적 가나안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은 날마다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적인 기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와 교훈을 받으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7~8절).

다윗은 자신을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고백합니다(7절). 훈계를 받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프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합니다.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라고 말씀했고, 잠언 8장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지혜를 얻게 하고, 생명을 살게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아서 주의 훈계를 잘 받는 자가 되었고, 기쁨으로 훈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사울왕의 혈통 중에 하나인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부하들은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결국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교훈한다고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훈계를 붙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자신의 앞에 모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8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훈계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자신의 산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산업을 삼고, 기업을 삼으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